대상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할매

#4대가 함께하다

저희 가족은 할머니, 어머니, 저와 남편 그리고 토끼 같은 2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대가족입니다. 요즘 도시에서 보기 드문 4대가 함께 어우러진 저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날마다 주어진 행복을 세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부모님의 품을 떠나 남편과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던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를 얻게 된다는 축복에 감격하기도 전,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12kg이나 체중이 감소될 정도로 극심한 입덧에 힘들어 일상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면 친정에서 지친 몸과 마음의 쉼을 얻었고, 오랜 고민 끝에 할머니,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한 후 현재까지 11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혼자되신 어머니는 오빠와 저를 홀로 키우시며 가정 경제를 책임지셨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어머니를 대신해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며 바쁜 저를 대신해 당시 70대 중반이셨던 할머니께서 저의 아이까지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고, 제 자녀들까지 할머니의 손을 빌려 양육했기에 할머니께 참 많은 빚을 지며 살아왔습니다. 키도 작고 허리도 굽으셨지만 어려서부터 봐 온 할머니는 늘 강단 있으시고, 자신의 주장도 강하신 대장부 같은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대가족의 가사활동은 물론 육아까지 모든 일을 척척해내시는 큰 산과도 같았던 할머니를 의지하며 저는 직장맘으로의 평범한 일상들이 늘 지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 온 불청객

그렇게 평범한 일상으로 가족들 모두 분주하게 지내며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요리를 하기 위해 냉장고를 열었는데 상한 식재료와 음식들이 보였고, 할머니는 식재료를 어디에 두셨는지 기억하지 못하시고 계속 사 오시는 일이 빈번해지셨습니다. 삶아서 손질해 둔 고사리는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곰팡이를 피우고 있었고, 언제 사다둔 지 모르는 자반고등어는 냉장고에 켜켜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온 제게 “오늘 낮에 왜 집에 왔다갔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집에 들른 적이 없는데,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남편에게 그 동안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조심스럽지만 차분하게 할머니의 연세도 많으시고 행동도 전과 같지 않으시니 검진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하였습니다. 빠른 시일에 할머니를 모시고 보건소에서 간단한 치매 관련 검진을 하였는데, 큰 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바든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가족들은 할머니

에게 찾아온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주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대학병원에서 치매 관련 인지검사를 실시하였고,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치매 초기 단계를 지나 중증으로 진입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치매는 상황이 호전될 수 없는 병이며, 더 나빠지는 것을 더디게 하는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할머니에게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족 모두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할머니에게 찾아 온 그 불청객을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할머니 혼자 어떻게 감당하셨을지 살펴보지 못했던 무관심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늘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셨기에 늘 큰 산처럼 제 곁을 지켜주실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해왔습니다. 할머니에게 느닷없이 찾아 온 불청객의 존재를 알게 된 가족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내 돈 내놔, 이 도둑년아!

가족들이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할머니는 이전과 너무 다른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할머니의 급속도록 진전되는 치매에 가족들은 우왕좌왕하며 당황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른 아침부터 고성이 오가며 사달이 났습니다. 늘 생활비를 자비 주머니에 현금으로 넣어두셔야 마음이 편했던 할머니는 주머니 속 현금이 없어졌다며 어머니를 “도둑년”이라고 내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어머니는 치매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도둑으로 부르시는 상황에서 당황하며 할머니를 다그쳤습니다. 저 역시 아픈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어머니에게 소리치는 할머니가 야속하고 미워서 할머니를 나무랐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오래 살아서 이래. 빨리 죽어야지. 영감 빨리 나 좀 데려가소.” 라고 더 크게 소리치며 우셨습니다.

할머니를 진정시키고 할머니의 옷장 속을 찾아보았습니다. 옷장 속 깊숙이 할머니가 잃어버린 생활비가 봉투째 있었습니다. 돈을 찾아주자 “그게 왜 거기서 나와?”며 사색이 되신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한동안 돈에 집착하시는 일이 많았고 가족들은 할머니의 생활비를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숨바꼭질하듯 옷장 속 옷 주머니마다 뒤지며 돈을 찾아내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일 돈으로 인해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던 저희는 더 이상 경제관념이 없으신 할머니께 생활비를 맡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가족들과 논의 끝에 생활비는 제가 담당하기로 하였지만 할머니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오랜 기간 설득한 끝에 할머니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한 부모 못 모시는 열 자식

스스로를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했던 할머니에게는 무기력함이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늘 아무 표정 없이 우두커니 TV 앞에 앉아계신 할머니의 모습이 저를 맞이했

습니다. 할머니는 날짜, 요일, 돈을 계산하는 방법, 집 주소 등을 하나, 둘 잊으시며 마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가족 모두 직장생활을 하는 데 할머니 혼자 집에 계시며 얼마나 외로우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할머니 옆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치매 성향이 바뀔 때마다 집안의 분위기도 침체되어 갔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제 발걸음 역시 무거웠습니다. 직장에서 지쳐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를 마주하는 상황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2남 2년 중 장녀였던 어머니는 할머니의 상활을 이모와 삼촌들에게 공유하였지만, 누구 하나 발 벗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아 외면하는 현실이 얄궂게 느껴졌고, 나이 들고 병든 할머니의 현실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옛말에 '한 부모는 열 자식을 거느려도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못 보신다.' 라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대신해 저를 키워주시고 노년이 되어서도 제 자식을 키워주신 할머니의 은혜를 갚지는 못할망정 할머니를 버겁게 느끼는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러던 중, 어르신주간보호센터를 알게 되어 한달음에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할머니도 이곳에서 친구들과 말벗도 하시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족들이 일터에 나가는 시간동안 할머니도 친구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사는 이야기도 나누시면 좋으실 거라는 기대감에 할머니께 들뜬 마음으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신 할머니의 얼굴빛이 어두워지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주간보호센터를 요양원으로 오해하시고,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밤낮으로 "나를 내다버리려고 한다." 며 울며 지내셨습니다. "어린이집처럼 할머니도 어르신 유치원에서 놀다가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수일에 걸쳐 설득을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힘들게 반신반의하며 저를 따르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년째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고 계십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약을 복용하시고, 주간보호센터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 하시면서 할머니는 조금씩 예전의 활력을 찾아가셨습니다. 센터에서 다양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선생님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다보니 다른 어르신들의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등 센터 활동에도 잘 적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치매는 참 다양한 양상으로 증상이 발현되는 병입니다. 어떤 날은 밤낮으로 잠을 주무시거나 어떤 때는 공격적인 성향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센터에서 다른 할머니와 감정적으로 부딪히셔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다른 할머니의 스카프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지고 오셔서 센터에서 전화가 오는 날도 있습니다. 센터에서 전화를 받는 날이면 마치 제 자녀가 학교에서 잘못을 하여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온 것 마냥 가슴이 쿵쾅거리며 방망이질을 칩니다. 방금 전의 일도 까마득하게 잊으시고 생소한 표정을 지으시는 할머니를 뵐 때면 적응이 되었다 싶다가도 당황스러운 일들이 반복되곤 합니다.

#생명을 불어넣다; 신장이식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일은 일상에서 다양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018년 신장기능이 8% 밖에 남지 않아 신장이식과 투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평생 자식을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의 여생이 할머니를 간병하시며 투석까지 하는 상황을 자식으로서 지켜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신장을 공여하기로 결정하였고 2018년 8월 어머니와 신장이식 수술을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의 돌아가는 무겁고 침체된 상황은 잘 모르셨지만, 자식이 아프다는 사실에 가슴 절절해 하시며 많은 눈물을 흘리셨고, 어머니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희를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아파도 아픈 자식을 애달아하고, 80세가 넘어도 부모에게 자식은 아픈 손가락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이 어머니는 지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지금도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아프시거나 기력이 없으시면 눈물을 흘리시며 "내가 빨리 죽어야 너희 엄마가 편안하게 살 텐데." 라며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아픈데 아픈 자식을 더욱 걱정하는 할머니를 보며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일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고, 병들고 약한 부모를 버거워하는 자식들의 모진 마음을 꾸짖어 봅니다.

#잠시 쉬어가자, 일상의 쉼표

어린 아이가 된 할머니를 모시면서 서울시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를 알게 된 것은 지친 일상에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2019년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휴가를 지원해주는 제도에 신청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하신 어머니는 잠시나마 할머니를 돌보시는 일상에서 벗어나 쉼을 얻으셨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렵고 힘들었던 삶에 개별 휴가제는 어머니와 제게 쉼표와 같았습니다. 잠시 할머니와 떨어진 일상에서의 쉼표는 할머니를 더욱 잘 돌보는 삶이 활력소가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공동 부담해야 하는 노인 문제입니다. 어르신 가족돌봄 지원제도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관심이자 치매 어르신의 복지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치매 어르신 돌봄가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치매 어르신 가족에게 심리·정서적인 지지가 되어주고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일상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치매의 묘약; 가족의 사랑

저희 가족들은 할머니에게 소리 없이 찾아 온 불청객인 치매가 처음에는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지만 그로인해 가족 모두 한마음이 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의 아픔과 외로움을 돌보지 못했는데 비로소 할머니의 치매로 인해 할머니께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할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할머니의 치매로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할머니의 치매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매일 아침은 제 일과 중 제일 분주한 시간입니다. 아이들의 학교, 유치원 등원 준비를 마치고 난 후 할머니의 식사를 준비하고 출근합니다. 제가 출근하고 난 후에는 제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의 센터 등원을 돕습니다. 가족들 모두 저마다의 역할을 통해 할머니를 돌보고, 할머니는 빨래 널기와 빨래 개기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며 가족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가족의 곁에서 건강하게 함께 하고 계신 할머니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인지, 우리 가족 모두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계신 일상에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에 행복을 느끼시고 아이처럼 기뻐하시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예전에 할머니께서 저와 저희 아이들을 키워주셨다면, 지금은 제 아이들이 할머니와 함께 색칠공부를 하거나 퍼즐놀이를 하며 할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할머니는 센터에서 종이접기나 공예 활동을 하실 때면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꼭 2개씩 만들어 오셔서 저희 아이들의 두 손에 쥐어주곤 하십니다. 매일 머리를 감겨드리거나 목욕을 씻겨드리면 늘 제게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챙겨주는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십니다. 저희 가족은 주어진 삶의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매에 가장 좋은 약은 가족의 사랑입니다. 가족들은 사랑의 힘으로 예전처럼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으며, 오늘도 가족의 사랑으로 꽃을 피우며 살아갑니다. 할머니께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지금의 일상을, 지금 이 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셨으면 좋겠고, 늘 가족의 곁에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우수상	아버지의 아이

동그란 귀에 유난히 크고 두툼한 귓불을 가지신 아빠가 탄 승합차가 굴곡진 코너를 지나 나를 보고 속도를 줄이더니 이내 가속 방지턱을 덜컥 넘어 내 앞에 정차한다. 승합차 문이 열려도 꿈쩍도 않는 누가 봐도 고집 세고 깐깐한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시다.

“어르신, 오늘은 따님이 나와 계시네~ 좋으시겠어요.”란 말씀으로 아버지의 주의를 집중시키시는 분. 마음이 전해지는 친절과 믿음을 보여주시는 기사님의 혹 할 만 한 멘트에도 꿈쩍 않고 오히려 화장을 하고 마스크까지 끼고 있는 나를 두 눈 힘껏 잔뜩 경계하는 동그란 눈초리로 미동도 없이 쳐다보고만 계신다.

나는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등교하지 않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가끔씩 퇴근하는 날이면 아버지의 하차차량과 얼추 비슷하게 도착한다.

“네, 퇴근시간이랑 잘 맞았어요 오늘.” 하며 손을 뻗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이내 왼손과 왼발을 뻗어 내릴 준비를 하신다. 내 목소리를 기억을 하시는 걸까. 아니면 한 시간 남짓의 모두가 힘든 이 여정을, 차 막히는 퇴근시간, 공사중인 고가다리를 피해 한 분 한 분의 성의가 얹힌 고된 하차 과정을 우리 식구로 인해 더 지체되는 걸 끔찍이 싫어하니 제발 그만 내리라는 나의 신호를 받아들이신 걸까. 그도 아니면 늘 나와 계시던 어머니를 기다리시는 걸까.

궁금한 것들이 미쳐 줄 세워지기도 전에 내 오른손 바닥에 왼손 바닥을 포개어 꽉 쥐시면서 드디어 승합차에서 내리신다. 나의 기억에서 아버지는 온화하고 포근하고 기댈 수 있는 어른은 아니었다. 희생하는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던 거친 시대에서 많은 힘없는 가장들이 그러하듯 가장의 역할에만 충실하기에도 세상은 너무 빠르게 지나갔고, 아버지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흐르는 시간만큼 자식들은 알아서 잘 보고 크겠거니 하셨던 무관심하신 아버지이다. 늘 만사에 호기심 가득하고 밑도 끝도 없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던 나에게는 말씀도 없고 따뜻한 리액션은 더 없는 아버지는 남과 가족의 그 어딘가에 있을법한 아버지란 섬에 있는 듯했다. 그런 아버지와 난 손잡을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런 아버지가 내 손바닥 위에 당신의 손을 얹고 꽉 쥐었을 때 난 기사님께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앞만 보고 걸었다.

“아빠, 오늘은 간식 뭐먹었어?”라는 나의 어색한 질문에 “개구리!”라고 대답하시는 아버지를, 꽉 쥔 손을 감당하기가 벅찬 느낌이었다. 난 사실 당황한 것이다. 아버지의 기억속의 나는 어떨지 궁금하다. 아버지 기억 속에서 수없이 많이 잡아줬을 나의 손은 언제였는지 어땠었는지. 내가 기억 못하고 아버지만 기억하고 있을, 분명 어머니와 내 이야기로 며칠을 시시콜콜 나눌 수 있을 그런 나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내가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는 건 알고 계셨을까.

몇 칸 되지 않는 계단을 오르다 울컥하는 마음에 더해 나의 결혼식 날이 떠오른다. 딱 이런 손의 자세로. 물론 그날은 아버지가 먼저 내밀고 기다리시던 손바닥에 내손을 포개서 계단이 아닌 조명이 찬란한 카펫 위를 행진을 하였었다. 그때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것 같다. 결혼식이란 의식이 불만 없이 마무리되고 그 행사와 관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일련의 동작 일뿐. 아버지의 거친 피부와 차가운 손바닥이 조금은 어색했지만 그런 아버지를 궁금해 하던 시간은 아니었다. 한참이 지난 후 어머니께 전해 들었던 이야기로는 그날 내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서 대성통곡을 하셨다는 아버지. 그 울음소리에 어머니도 당황하셔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심지어 같이 계시던 지인들조차 생전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하고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하다고 했다. 그 얘기를 전해 듣는 나는 의아했고 그 누구보다 당황했다. 아버지와 나는 그렇게 애틋하지도 나눌만한 추억도 없는데 왜 그러셨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렇게 결혼식 날의 아버지의 감정은 궁금증을 남겼었다. 한번 묻지 못했는데 문득 이제야 궁금해졌다. 그날 아버지에게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때의 아버지는 지금 나와 같이 많은 생각과 느낌에 당황하시진 않았을까. 그날 내 손을 잡고 걸었을 때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그동안 내손은 잡아주시던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아뒀던 감정의 탑이 그날 흔들려 무너졌을지 모른다. 내가 몇 계단만에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께도 감정들이 복잡하게 쏟아져 내린 것은 아니었을까.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지만 지금의 아버지의 섬까지 닿지는 않을 것 같다.

아버지께서 치매 판정과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나는 대부분 관찰자였다. 어머니께서 병원은 다니시고 돌봄교육을 다니시고 안팎에서 24시간을 고군분투 하시는 그 모든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끌어안고 지내시는 동안에도 내가 어머니처럼 아버지를 돌봐드리거나 어머니를 대신할 만큼 만족스러운 보살핌을 해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안 몇 발자국이라도 아버지가 가시는 곳을 따라 나서서 살피시고 드시고자 하는 음식을 먼저 집어드리는 어머니와 달리 나는 그런 어머니의 버거움을 덜어드리며 어머니를 살피고 어머니를 거드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우리 생활에 패턴이 자리잡아가던 어느 날 퇴근해서 막 들어서는데 아이와 아버지께서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들어왔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크던 10살의 아이는 몇 달간 할아버지와 같은 시공간에 살면서 이제 식사 시간이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모셔다 턱받이를 챙겨 메어드리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소시지를 양보하는 아이가 되어있었다! 그 모습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챙기는 모습이었으며 내가 어린 딸아이를 키우던 때의 모습인거다.

나는 아이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다. 요즈음 아이들은 곳곳에서 수많은 상식과 지식을 접한다. 우리 아이도 과학만화나 영상을 통해 수없이 접했던 치매라는 병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표출 할지 걱정도 되었지만, 내 생각에 이미 책이나 영상물에서 접한 병과 병의 증세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이와 할아버지의 관계에는 좋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와 24시간을 부딪혀보면서 스스로 느끼길 바랐다. 병을 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상대해 주길 바랐다.

아이는 그렇게 자연스레 체득하면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나에게도 보여주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 할아버지는 한 끼에 반공기의 밥을 채 드시지도 못하는, 무릎에 파스를 붙여가며 끙끙대시는 할머니 보다 약자였다. 하루 종일 할머니에게 먹고 싶은 음식을 조르고 엄마에게 하고 싶은 일을 떼쓰는 자신보다 아이였다. 그래서 식사시간이면 할아버지의 식사속도에 맞춰 물을 권하기도 하고 뜨거운 음식을 저지하기도 하는 할아버지의 돌봄이가 되어있었다. 이내 나를 보고는 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릴지언정 할아버지에게만큼은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러운 어른이었다.

정작 나는 아이가 할아버지와의 좋은 관계를 맺길 바라고 할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기를 바라면서 어머니의 뒤에 숨어서 어머니를 살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최선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어른답지 않은 회피적 생각이 부끄러워지는 시간이었다. 효율과 책임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나야말로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그런 태도로 옆에 있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돌봄이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어머니와 나의 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는 몇 년 전의 나의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보면 방긋방긋 웃기만 하시는 마냥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아프시기 직전까지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다. 가끔씩 아이와 친정을 오갈 때면 밤늦게 퇴근하고 오는 아버지는 못보고 돌아가기가 일쑤였고 아버지는 늘 퇴근하고 오시면서 어머니에게 “애들은 갔나?” 하며 혹시나 하며 물어보시곤 했었다.

요즘 아버지와 어린 손녀까지 맡고 계신 어머니의 피로가 가득 찰 때 쯤 나는 아이를 데리고 외출도 하고 며칠씩 내 집에 다녀오기도 한다. 오늘은 저녁이 되어서 아이와 산책을 하러 나가기로 했다. 아버지는 아프시고 나니 아이러니하게도 얼굴이 더 밝아지셨다. 전엔 하루에 한번 웃는 모습을 뵙기 힘들었는데 종일 웃고만 계시니 이 병이 야속하게만 느껴져 심술이 난건지, 왜인지 고약한 마음에 갑자기 장난기가 생겼다. “아빠, 이제 우리 가요. 안녕.” 하고 외치는 날 보는 그 낯빛이 너무나 깜깜해진다. 아차 싶었다. 머쓱해진 나는 연신 아버지를 부르는데 아버지께서 고개도 돌리지 않으며 말씀하신다. “다시 올건데...” 그 말을 들은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식하고 있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다는 것과 평소엔 전혀 못하시던 짧지만 알맞은 문장을 쓰셨다는 그 모든 사실에 크게 놀랐지만 다들 태연히 반응하였다.

“아하하, 맞아요. 산책 다녀올게요.”하고 그날의 산책은 모두에게 한껏 가벼운 마음을 선물했다. 나의 짓궂음이 어떻게는 아버지에게 자극이 되어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 마냥 신기했고, 모든 치매가족들이 그러하듯이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어느 영화에서처럼 어느 신화 속 이야기처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그런 기대감 말이다.

언제고 다시 지칠 대로 지친 한숨만 빽빽하게 섞인 현실로 돌아올지라도 같은 마음의 기대가 느껴지는 찰나였다. 이제는 일부러 퇴근 시간을 아버지 하차 시간에 맞추기도 하고 일

찍 도착해서 몇 십 분을 현관 앞에서 기다리기도 한다. 여느 때처럼 회색 승합차가 나를 보고 과속 방지턱을 넘어 멈추고, 아버지도 성큼 내손을 잡고 내리신다. 내가 오늘도 감사한 기사님께 인사할 틈도 주지 않으시고 내손을 꼭 쥔 채 집으로 뛰는 듯 성큼성큼 향하시면서 현관 앞에 막 들어설 때쯤 갑자기 나를 휘리릭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오늘의 첫마디를 하신다. “애들은 갔나?” 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는 아버지를 맞이하는 어머니와 아이. 우리는 안다. 치매노인 돌봄 가족으로서의 우리에게 오늘은 어제보다 나을 것 없는 시간들이란 것을 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와 맞닿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는 아버지의 섬에서 늘 같은 시간 속 다른 오늘을 살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는 한없이 어린아이가 되어가면서 나를 더 나은 어른으로 키워 주시려나 보다.

최우수상	가족 돌봄과 나

저는 현재 직장을 쉬고 있는 백수입니다. 아니 엄마를 24시간 돌보는 딸이고 전문적으로 케어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좀 더 전문적으로 케어 해드리는 남들이 말하는 착한 딸이다.

나의 원래 직업은 어린이집교사였다. 결혼적령기가 훌쩍 넘긴 미스골드로 어린이집교사생활을 하였다. 엄마가 아프시기 전에는 말이다.

어린이집에 출근하면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교사였고, 집에 오면 엄마에게 떼쟁이가 되는 철부지 딸래미였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가 우울해 하거나 밤에 나타나는 섬망으로 밤잠을 안 주무시는 엄마를 보살펴 주는 엄마의 많은 딸래미 중 막내딸이다.

식사와 세수 그리고 목욕까지 이제는 내 손이 가지 않으면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만히 우두커니 침대 턱에 앉아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는 노인이다. 점점 엄마는 세수하는 것도 까먹고 배가 고픈지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구분이 잘 안가고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도 눕는 것도 나의 손길이 없이는 아주 잠시도 지탱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다.

지금 생각하면 2017년 2월인 것 같다. 엄마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잦아지고 밤에도 다리의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어 수술을 결정하고 다리수술을 해드린 것이 후회스럽다. 그때는 엄마 본인도 많이 아파하셨기에 해 수술을 결정하였는데 그때부터 우리 집 생활이 360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남들은 두 다리 연골수술을 하여 걷는 연습을 하거나 퇴원을 하였지만, 엄마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는커녕 밤에는 섬망에 시달렸고 수술한 다리는 통증으로 화장실 출입이 어려워졌다. 의사선생님은 수술은 잘 되었고 염증수치가 높다고만 하였다. 수술하여 입원할 수 있는 날이 다 되어 병원 원무과에서는 퇴원수속을 해 달라고 재촉한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 언니들이 결정을 하여 엄마를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나는 그 때 엄마집 근처에 방을 얻어 사는 소위 캥거루족이었다. 아침, 저녁은 엄마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잠을 잘 때는 나의 집으로 가는 캥거루족생활을 했었다. 퇴근을 하고 요양병원에 잠깐씩 갔었을 때였다. 엄마가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면 딸내미가 왔는지도 모르고 “니 언니가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는지 몰라!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왈칵! 눈물이 나왔다. 나의 두 손을 꼭 잡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엄마의 말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다음날 직장에서 출근하여 월차를 쓰고 사설로 운영하는 119를 불러 엄마를 집으로 모셔왔다.

언니들은 허락도 없이 내 마음대로 엄마를 요양병원에서 집으로 모셔 간 것에 화가 나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소위 말해서 밥도 한 번도 안 해 보았고, 내

속옷도 한번 빨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엄마가 다 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는 캥거루족생활을 접고 엄마 집으로 이사를 했고 같이 생활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케어를 하며 직장에 출근도 하였다. 그것도 잠시 낮 동안에는 엄마 혼자 계셔야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거동을 아예 하지 못한 엄마는 내가 직장에서 올 때까지 혼자 계셔야 했기 때문에 만일 배변이라도 보면 기저귀를 어떻게 혼자 벗어 온 방안에 묻혀 놓기가 일쑤였고 하루는 혼자 거동을 못하지만, 어떻게 내가 퇴근하기 전에 대변본 것을 해결해 보려고 화장실까지 엉덩이를 밀면서 가 화장실바닥에 넘어진 채 있었던 일등 우연곡절이 많았다. 이대로는 엄마도 안 되겠고 나도 하루 종일 직장생활 후에 저녁에 와 엄마의 흔적 등을 치우는 일등은 내 체력도 한계가 와 직장에 사표를 제출했다. 엄마의 손발이 되어 생활을 하면서 밥과 반찬도 만들어 먹게 되었다. 그 보다는 놀라운 변화는 어린이집교사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케어 한 것이 엄마를 케어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전에는 모든 결정을 할 때 엄마와 상의하여 결정을 하던 내가 엄마의 결정력과 의사표현능력이 사라져서 모든 것을 내가 결정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많다.

지난 시절에 엄마가 나에게 해 주신 큰 사랑에 보답을 해 드리는 길이 엄마를 잘 보살펴 드리는 일이라 생각되었다. 엄마를 케어 해 드리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졌고, 무엇보다도 집안 살림을 해 나갈 수 있는 점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힘든 일을 안 해 보아서인지 관절에 문제가 생겨 지금은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나, 호전되지 않아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수술을 하게 되면 엄마는 누가 케어 할지 걱정이 되어 지금은 수술날짜만 미루고 있다.

엄마를 케어해 드리면서 각종 병이 엄마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죄송스럽다. 당뇨합병증으로 한쪽 눈을 실명하셨고, 신우염이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하고 당뇨로 내성발톱과 축구공만한 담석을 배속에 넣고 다니고 계시고 배변 볼 때마다 피가 나와서인지 혈액부족인 상태이다. 병원에서는 정밀검사를 통해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고령이라 걱정인 상태이다. 만약 검사를 하여 암수치가 나오면 항암치료를 해야 하는데 말이다.

엄마를 돌보면서 제일 변화된 나의 삶은 부모님 곁에 사는 캥거루족에서 무슨 일이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집안일을 책임지고 해 나가면서 틈틈이

단기알바 또는 보조교사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가면서 경제적인 면도 책임지는 과장의 자리로 왔다는 점이다. 오늘도 어렵지만 파이팅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최우수상	엄마와 같이, 엄마의 가치

- “엄마 또 그랬네. 아이구 정말. 팬티 다 젖었네. 팬티 쭉 내리라니깐... 지린내 나. 얼른 옷 벗어, 목욕해야 해”
- “안 해, 추워”
- “한여름인데 뭐가 추워”
- “싫어 안 해”

고집을 부리는 엄마와 한바탕 실라이하며 겨우 엄마의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킨다. 엄마와 함께 한지 10년이 되어 간다. 갑작스런 엄마의 치매 진단에 우리 형제는 한동안 당황하고 우왕좌왕했다.

원래 지병인 당뇨로 인해 혈관성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우리는 전혀 눈치를 못 챘다. 그만큼 엄마에게 무관심했었다.

어느 날 화장실 앞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치며 엄마의 치매 증세는 느닷없이 찾아온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진행되었다.

자신의 물건에 대한 집착은 나날이 심해지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늘어났다.

급기야 가장 가까이 사는 작은딸(내 동생)이 직장에 나가고 없는 사이 동생집 장롱이며 집안 이곳저곳을 헤집어 놓기 일쑤였다. 자신의 물건을 쳐갔다고 생각해서이다. 동생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오빠와 내가 안심을 시키면 그 때 뿐 엄마에게는 어떤 말도 의미가 없었고 엄마 본인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 그렇게 엄마에게 몇 달을 시달리다보니 우리 형제의 우애도 금이 가는 것 같았다.

엄마에게 가장 많이 시달린 동생은 엄마에 관한 일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빠와 나는 엄마가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고민 끝에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하고 사방으로 좋은 시설의 요양병원을 알아보았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던 2011년 3월 초 그때를 잊을 수 없다.

엄마에게는 병원에서 검사 받을 게 있어서 2~3일 입원했다가 꼭 퇴원할거라 하며 일단 안심시키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엄마를 두고 뒤돌아서는 마음은 착잡했다.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오빠와 나는 서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 엄마가 어떤 엄마였던가?

우리 집안의 최고의 요리사로 손꼽힐 정도로 요리솜씨가 대단히 좋아서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 치르는 것은 물론 우리 형제들은 그 시절에도 한식요리는 물론 쿠키, 카스테라, 러시안스프 등 그 당

시에는 생소한 서양요리도 종종 먹어 볼 수 있었다.
우리 엄마는 아버지의 지방 근무 때문에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다 보니 여러 방면에서 만능 엄마였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위해 늘 동동거리며 바쁘게 살아왔다.
그런 엄마 덕분에 우리 형제는 큰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편이다.

내가 고등학교 때 일이다.
나는 엄마에게 시험공부 해야 하니깐 한 시간 후 깨어달라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엄마는 내가 아픈게 안쓰러워서 좀 더 자게 한다는 것이 엄마도 너무 피곤해서 깜박 잠이 들어버렸다.
나는 내 스스로 못 일어난 걸 엄마 탓으로 돌리고 화를 내며 책가방을 들고 뛰쳐나가니깐 엄마는 내 도시락 가방을 가지고 뛰어나오며 내손에 들려주었다.
“아침도 안 먹었는데 점심은 꼭 먹어”
화가 나서 안 가지고 가려다가 엄마가 두 손을 꼭 잡아 쥐어 주어서 어쩔 수 없이 들고 갔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 가방지퍼를 열자 난 순간 먹먹했다. 도시락 겉뚜껑 위에 돈이 있었다.
내가 아침밥을 못 먹고 학교 간 것이 엄마 마음에 걸려 넣은 거라 생각하니 나는 아침에 엄마한테 한 짓이 너무 미안해서 그만 울고 말았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라고 직접 말하는 건 서툰 엄마였지만 이것이 엄마의 사랑 표현이었다.
그 당시만해도 지금처럼 다양한 가전제품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라서 끼니때마다 새로 반찬을 해야 했고, 고무장갑도 없던 시절 엄마는 맨손으로 늘 빨래를 해야 했고 덕분에 우리의 교복과 운동화는 언제나 깨끗했다.
매일 아침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자식의 아침을 먹이고 자식들의 도시락을 싸야 했다. 정말 엄마의 일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어마어마했다.
엄마 손은 갈라져 피가 나서 밤마다 글리세린을 발랐다. 그땐 이 모든 것이 엄마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런 엄마한테 화를 낸 거였다.
이렇게 우리는 엄마의 알뜰한 보호 아래 잘 성장했다.
그런 엄마를 우리 형제들은 엄마를 버거워했다.
엄마는 우리를 위해 그 오랜 세월을 희생했는데 우리는 그 몇 달이 힘들었다. 그 현실이 참으로 슬펐다.
나는 차창 밖으로 눈을 돌려 눈물을 삼켰다.
요양병원 권고 사항 중 하나는 어르신 적응 기간 중에는 될 수 있는 한 면회를 자제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요양병원 측도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나와 전화를 연결해주었다. 면회는 언제 올거니? 나 여기서 나가고 싶다. 이런 말이었다. 엄마는 매일 전화를 했고 나는 항상 내일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나 간절해서 남편과 함께 결국 3주째 면회를 갔다. 엄마는 나를 보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잠시 멍하니 바라봤다.
사뭇 다른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 했다. 엄마의 눈은 물안개

낀 것처럼 희뿌옇고 입가에 침이 약간 흘렀다. 엄마가 내 귀에 대고 “나 좀 데리고 가 줘” 사정하듯 말했다.

너무나 야무지고 똑똑했던 우리 엄마가 한없이 작아져서 나에게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시리도록 아파왔다.

면회를 마치고 엄마에게 금방 또 올 거라 굳은 약속을 하고서야 엄마를 뒤로 할 수 있었다. 요양병원 문 앞을 나오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면회 후 남편이 운전하면서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어머니를 모셔 보는 게 어때” 라고 했다.

그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나로서는 크나큰 심적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이틀 동안 고민 끝에 오빠에게 연락을 하여 엄마를 몇 달만이라도 모시고 싶다 하니 오빠는 그건 힘든 일이라며 극구 반대했다.

하지만 엄마의 주치의 선생님이 그 당시 엄마의 치매 진행 속도로 봐서는 진행이 빨라 몇 개월 못 사실 것 같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저 엄마와 몇 달 만이라도 같이 하고 싶었다.

2011년 3월말 경부터 엄마는 나와 함께 하기 시작됐다.

엄마의 거동을 고려해 화장실이 있는 안방을 엄마와 내가 사용하고 대신 남편은 작은방을 사용했다. 보통사람에게는 평범한 생활 활동도 엄마는 도움 없이 전혀 할 수 없었다.

나는 늘 동동거리고 바쁘다. 나는 집안일 하면서 수시로 들락날락 엄마를 들여다보며 “엄마 이 닦아”, “엄마 틀리 빼서 닦아야지”, “엄마 세수해”, “엄마 옷 입어야지” 등등.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해주지 않으면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엄마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내가 대신 기억하고 찾아야 한다. 엄마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치밀어 오른다. 엄마와 같이 살면서 여러번 고비가 왔었다.

엄마로 인해 힘들 때는 이젠 엄마를 놓아버릴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최근 들어 엄마는 내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다는 불안증세가 더욱 심해져서 엄마 눈앞에 내가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신경이 더욱 예민해졌다. 휴일이나 데이케어센터가 운영하지 않는 날에는 몇 분 단위로 엄마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느라 갑자기 불안한 모습으로 나를 찾고는 한다. 자연히 나는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집안일을 하다가도 수시로 엄마에게 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야만 했다.

더군다나 밤에 자다가도 수시로 깨서 내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거의 8개월 간은 숙면을 취할 수 없었다.

오랜 기간 모시면서 나도 모르게 엄마에게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내고 그리고 나서는 자책하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며,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서 엄마를 요양시설에 모시기로 했다.

입소하기 전날은 동생이 마지막으로 엄마와 함께 하고 싶어 했다.
나는 동생 집에 가고 없는 엄마의 흔적을 보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엄마가 요양시설에서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기 시작했다.
하나 둘 준비물을 챙기며 내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엄마를 케어하며 늘 사용했던 엄마의 일상용품들에 일일이 포스트잇에 설명을 써서 지퍼백마다 붙여야 했다.
엄마는 목욕 후 보습을 위해 바디로션을 온몸에 발라 드려야 하는데 거기 종사자분들이 그 많은 분들을 일일이 신경 쓸 수 있을까? 하는 등등 별의별 걱정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엄마가 정말 징글징글하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엄마와는 못 살 것 같아 요양시설을 알아 본 내가 아닌가.
다음 날 아침 나를 픽업하러 온 동생차를 타고 요양시설로 향했다. 어디를 가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엄마의 얼굴은 평온해보였다. 나는 “엄마, 엄마” 엄마를 두 번 부르다가 목이 메어 창가로 눈을 돌렸다. 엄마가 철썩 같이 믿고 있는 딸이 엄마를 이젠 놓아버리려 하는 걸 모른다. 하지만 요양시설에 도착해서 수속을 밟으며 시간이 걸리자 엄마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내 손을 잡아끌며 집에 가자고 했다.
동생이 안심시키려 다가가자 엄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벌컥 화를 내며 동생 손을 뿌리쳤다.
하지만 내가 엄마를 다독이자 안심하고 데이케어센터인 줄 알고 들어갔다.
엄마랑 살면서 종종 화를 냈는데도 엄마의 기억 속에 나는 늘 착한 딸이다. 그렇기에 엄마는 내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순순히 들어갔을 것이다.
요양원을 나서며 동생이 “언니, 그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어. 언니는 엄마한테 할 만큼 했어” 하는 말에 나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엄마가 없는 안방은 덩그러니 너무 커보였다.
엄마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걸으러 나갔다.
걷기를 좋아하는 나는 그날은 걷기마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마치 허공을 걷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아들을 보고 “엄마가 오늘 할머니를 요양시설에 모셔놓고 와서 마음이 안 좋아. 엄마가 그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단다. 너랑 내가 편히 잘 때 할머니랑 자며 못 잘 때도 많고, 가끔은 한밤중에 대변을 이부자리에 실수해서 할머니 목욕 시켜드리고 손으로 이불빨래 하곤 했어.”
남편의 말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바로 그 때 동생마저 언니 마음이 걱정되어 전화를 해 주었다.
“언니 마음 괜찮아?” 하는데 너무나도 괜찮지 않았기에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의 정적 끝에 결국 나는 말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일 아침 일찍 엄마 다시 모시고 와야겠어” 하며 그 날도 밤을 하얗게 새우고 아침 일찍 남편차로 엄마를 모시고 왔다.

이렇게 엄마와의 생활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고 내 삶에 변호가 생겼다. 엄마의 지나온 삶과 현재의 모습을 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 일상 속에서 제한된 시간이지만 영어, 일어 어학을 공부하고 연필화를 배우면서 엄마 얼굴을 그리는 중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유치원에서 이야기 할머니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서 열심히 준비 중이다. 결국 엄마 때문에 힘이 들어도 엄마 덕분에 내 삶은 빛나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비록 희미하게 꺼져가는 촛불 같이 보일 우리 엄마이지만, 나는 엄마가 환하게 비치는 빛이 있었기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

오늘도 엄마와 같이 하며 엄마의 가치를 되새겨본다.

우수상	다시 희망을 꿈꿉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는'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지 않은 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그리 자랑할 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남과 내가 다르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한편, 자신이 누구이며, 또 자신의 눈으로 보고 생각한 것들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은 남과 다름을 알리면서, 나만의 색깔을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코로나19'로 인해 한 여름에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입을 막고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중동 여인들처럼 진한 눈화장이 유행이라고 하지만 마스크로 가려진 자신만의 색깔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고민합니다. 이 또한 남과 다른 나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아닐까요?

세월이 하 수상하여 힘들고 불안한 이 시기에 나 또한 처한 현실이 지루하여 이 시간을 좀 건너뛰어 아름다운 추억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침 돌봄센터의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지난 여행을 통해 내가 가졌던 경험과 나만의 특별한 느낌을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잠시나마 나를 돌아보고 내 생각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여행을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만큼 많은 여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딸 아이와 아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보기 위해 가끔 비행기 타는 일 외엔 특히 국내 여행은 가본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네 아이를 키우느라 여행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고, 애들이 좀 커서는 공부 뒷바라지로 더더욱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여 년 전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뇌졸중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남편을 위해 동분서주했고, 병원 이곳저곳, 전국 방방곡곡을 옮겨 다니며 재활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보람도 없이 남편은 정상의 몸으로 회복되지 못한 채 불편한 몸으로 오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출가했고, 우리 부부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좀 편안해 지려고 애써왔으며, 이제 어느 정도 여유로움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루는 여전히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 남편은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홍릉 연구단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에서의 강의 등 일중독자라 불릴 만큼 부지런했습니다. 성품은 조용하면서 덜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신념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의 불편

함이 자신에게는 무척 힘들겠지만, 그런대로 견디면서 적응하며 한편, 수명을 연장하게 됨에 감사하면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누가 봐도 따분하고 힘들 것이라 인정할 만큼 충분히 고된 나에게 어느 날 돌봄센터를 통해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여행은 어떤 여행이든지 행복하지만, 특별히 지난 해 한려수도 관광(2019. 7. 26~28)은 나에게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소설 속에서만 상상해보고, 드라마 화면으로만 보아왔던 한려수도(閑麗水道)는 실제로 너무도 아름답고 신비스러웠습니다.

한려수도는 전남 여수시 오동도(梧桐島)에서 경남 통영시 한산도(閑山島)에 이르는 물길을 말합니다. 남해의 물길 300리(50해리), 5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동화처럼 떠있는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가 곳곳에 널려있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청정 해역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산뜻한 쾌속정, 석양에 비치는 범선이 가는 듯 오는 듯 떠있는 정경은 낭만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거제대교를 지나 거제도를 거쳐 외도로 가는 물길 해금강은 어찌나 아름답던지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난 신선한 공기와 함께 그 신비함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취해 있었습니다.

한 개인이 정성들여 만들어 논 외도의 해상농원 보타니아를 거닐면서 '어떻게 이 부부는 이런 멋진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 또한 생각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그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탄하며 희귀한 아열대 식물 선샤인, 야자수, 별난 선인장들에게 혼줄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외도를 떠나오면서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그래서 꼭 오고 싶었던 이곳이었기에 다시 한 번 뒤돌아 보는 미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케이블카로 통영의 미륵산을 올랐으나 흐린 날씨 탓에 통영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산의 정기만 받고 하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통영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룸메이트가 정해졌고, 그녀와 도란도란 지나온 세월을 묻고 대답하며 새벽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신선한 공기 탓인가? 낯선 잠자리 탓인가? 나이 탓인가?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그 옛날 시댁 어르신들이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셔서 무슨 할 얘기가 그리도 많으셨던지, 늦게 그리고 곤하게 잠들었던 젊은 애들은 그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에 못내 잠을 깼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어 저런 모습이 되려나?' 했었는데, 어느덧 반백이 되었고,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 분주한 내 모습을 보며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오늘의 첫 목적지는 남해군 삼동면의 독일인 마을입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기에 독일의 광부, 간호사로 파견되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헌신했던 독일 거주 교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조국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2000년에서 2006년까지 7년간에 걸쳐 남해군에 조성한 교포정착 마을입니다.

빨간 지붕과 하얀 벽돌은 독일에서 그 재료를 직접 가져와서 전통적인 독일 양식으로 주

택을 건립하여, 2019년 현재 34동의 주택이 완공되었습니다. 그곳 파독 전시관에서 관람한 '6.25 그 이후'라는 영상은 지금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이 부요함이 어떻게 해서 이룩된 것인지를 느끼게 해 주었고, 영상을 보는 내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곳 수비니어에서 독일다운 기념품 마그네틱을 구입한 후 남해 보리암(菩提庵)의 보광사(普光寺)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이성계가 100일 기도를 드린 후 조선을 이룩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으로 금산(錦山: 이 산을 비단으로 감싸겠다는 뜻)이라 명합니다. 또한 '지혜의 힘'이라는 뜻의 보리암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르는 길이 가팔라서 힘들었지만, 숨을 헐떡이며 관음보살상까지 올랐습니다. 안개비가 내렸고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절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는 없었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어느 소설 속에 나옴직한 한 장면처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채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노량대교를 지나 멀리 남해대교를 바라보면서 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빨간 금문교(Golden Gate)가 떠올랐습니다. 동양 최대의 현수교로서 유명하다는 남해대교를 지나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전남 광양에 도착합니다.

섬진강을 경계로 동쪽은 하동군, 서쪽은 순천시, 남쪽은 광양만입니다. 이 광양만 일대의 경치는 어떤 사람의 표현을 빌리면'이 세상의 경치가 아니다'라고 할 만큼 일품입니다.

난 이 천국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을 간직한 채 전남 광양시 진원면에 있는 정병욱 가옥을 방문했습니다. 정병욱은 1922년생으로 우리나라 애국청년 시인 윤동주의 5살 후배이자 친구입니다. 그런 윤동주와 함께 체포되었다가 해방을 며칠 앞두고 윤동주는 감옥에서 순국했지만, 그는 풀려납니다. 그는 서울대 교수 및 박물관장을 지낸 우리나라의 유명한 국문학자입니다.

윤동주는 자신이 쓴 시들이 출판되지 못할 것을 알자 육필로 3부를 만들어 한 부는 자신이, 다른 한부는 부모님에게, 나머지 한부는 정병욱에게 전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잘 간직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의 것과 부모님께 드린 것은 어찌 되었는지 알 길이 없고, 친구 정병욱에게 준 나머지 한 부는 남겨져 오늘날 그의 시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정병욱은 그의 어머니에게 윤동주의 시 원고들을 맡겼습니다. 정병욱의 어머니는 이곳 광양시 진월면 정병욱의 생가 뒷산 신사참배 사당이 코앞에 있는 이곳에 땅을 파고 묻습니다.

해방이 된 후 이 원고들을 찾아낸 정병욱은 윤동주의 모교 연희전문학교에 전달했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윤동주 시집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병욱의 생가를 둘러보면서, 열정적으로 해설하는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뭉클했던 기억은 이 여행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알량한 애국심이 격하게 솟아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 생가는 우리가 방문한 후 며칠 지나 재건립을 위해 부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옛집 그대

로를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러웠습니다. 나는 다시 한 번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생각하며 숙연한 마음으로 그 옛집을 눈에 담았습니다.

다음 날은 여수로 출발했습니다. 광양에서 여수를 잇는 이순신대교를 달렸습니다. 이곳 한려수도는 곳곳에 이순신 장군의 기운이 서려있습니다. 힘없던 우리나라가 왜적의 침입을 당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신 이순신 장군은, 지금도 강대국 사이서, 그리고 이북의 위협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다시 한 번 기억되고 그리워해야 할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관광계획은 아시아에서 제3위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케이블카를 타고 여수 돌산공원에서 오동도 자산공원까지 오르는 일입니다. 자산공원 갯바위에서의 촬영은 굉장히 멋진 이벤트(사진 첨부) 중의 하나였고, 우리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동도의 온산이 동백나무로 뒤덮여 있어 동백나무를 원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전주 한옥 마을에 도착하고 보니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우산 없이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비오는 날의 한옥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리는 비와 너무도 잘 어울리는 풍경이었습니다. 이성계의 초상화를 봉안한 궁전인 경기전(慶基殿)을 돌아 전동 성당까지 걸었습니다. 이 성당은 문화재 제288호로 천주교 최초 순교자들의 한 맺힌 사형터였습니다. 첫 순교자는 아우구스티노, 프란치스코 등이 이곳에서 처형을 당했고, 그들의 순교는 1801년 신유박해로 이어집니다.

이들의 순교를 기리기 위해 1891년 고종 28년에 프랑스 보두네 신부가 부지를 마련하고, 1908년 성당건립에 착수해 1914년에 완성됩니다. 설계는 서울의 명동성당을 설계한 푸와넬 신부에게 맡겨져서 부지를 매입한지 23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회색과 붉은 벽돌을 사용해서 호남지역 최초로 지어진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은 지금 보아도 세련되고 웅장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밑기둥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음에 감사하면서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행은 사람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그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경험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려수도 여행에서 난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들을 상기하면서 나라의 중요성과 고마움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내 삶을 밖에서 당당하게 들여다보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이, 닫히고 무뎌진 마음이 열리면서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무척 힘들 것입니다. 때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악을 쓰며'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거야!'라고 소리치고 싶을 것입니다.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나 역시 도와주려고 애는 쓰지만, 역부족을 느끼며 그런 내 삶조차도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안하고,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삶이며, 고난을 잘 이겨냈을 때 누리는 승리의 결과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어쩜 연기나는 부지깽이의 그루터기에 불과

할지 모릅니다. 이 삶을 잘 살아낸다면 육체는 비록 부자유스러울지라도 삶의 질은 풍성해지고, 성숙해지며, 자유로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동안 떠나지 못하여 생긴 여행에 대한 욕망과 갈증이 이번 여행을 통해 완전히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 충만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준 돌봄 센터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며, 일상의 지루함과 곤고함에서 탈피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소리가 그리움의 소리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난 또 여행을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득 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나 자신도 인생이란 여정을 순례하는 외로운‘여행자’라고.

내가 자리 잡고 머무는 이곳이‘인생이란 나의 긴 여정의 한 터에 불과할 뿐’이라고. 며칠 못 본 남편이 그립습니다. 식사는 잘 하고 있는지?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았는지? 외롭지는 않았는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공간으로 내 몸이 자석처럼 끌려가면서 다시 한 번 그리움을 봅니다. 희망을 꿈꿉니다.

우수상	그래도...제 곁에 오래 계셔주세요.

올해 69세가 되신 우리엄마는 10년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다.

일찍 결혼하셔서 23세에 첫딸인 나를 낳고, 공무원이신 아빠의 각박한 월급으로 나와 내 동생을 키우시고 기르시며 늘 빠듯하신 가운데도, 알뜰살뜰하게 그렇게 생활해 가시며 엄마의 인생을 살아가신분이다. 학교졸업하며 서울로 취업하여 독립생활을 하던터라, 엄만 아빠와 두 분이 고향집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명절이나 이슈가 있을 때만 집에 들리곤 해서 엄마의 변화나 이상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지내왔던 어느 날.

엄마와 이모를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갔던 때였는데, 전과는 다르게 이상한 엄마를 발견하게 되었다. 처음와 본 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전에 내가 와봤던데야..” “에이~ 맞다니깐.. 나 와봤어 진짜로”관광지를 돌면서 몇차례 그런 소릴 하시는데, 그냥 순간 착각하시나, 싶었는데.

여행하는 3박4일 내내 엄만 그런 일로 인해 나와 계속해서 잦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여행 다녀오고 난 뒤 이모님이 “아무래도 엄마가 이상하니깐 검사한번 받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라는 말씀에 긴장이 되어, 그당시 내가 거주하던 중구에 있는 치매지원센터로 문의를 하여 엄마검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경도인지장애” 사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 가볍고 너무나 희망적인 단계지만.

그때 당시는 가족모두 너무나 충격이었다. 아빠께 얘길 드렸으나 집안에 치매질환으로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없었기에 너무도 무지했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시는 아빠는 “아빠랑 새벽기도 잘 나가고, 식사 잘하고, 산책 잘 다니면 된다…” 라고만 하시며 가볍게 여기시는 듯 했다. 물론 기본생활을 잘 하면 그것 또한 도움이 되겠지만, 의학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단 생각이 들었다.

고민하던 중 그쪽으로 유능하단 한의원을 소개받아 엄만 귀찮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권유로 매주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오셔서, 한방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의 1년 가까이 몇 백을 쏟아 부었으나 차도는 크게 없었다.

이곳저곳 알아 보던 중 치매지원센터에서 음악프로그램 선생님이 엄마에게 도움이 될 거 같으시다며 참여를 최소 주2.3회라도 권하셨지만, 이미 매주마자 치료로 다니셨던 경험이 있으셔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단 게 엄마의 의견이셨고, 그냥 이사를 하는 건 어떨까도 난 생각했지만, 사실상 한평생 그곳에서 생활하신 부모님이 서울로 당장에 옮겨와서 생활하시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부모님 거주하시던 충주는 그때 당시 그런 기관이 딱히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어쩔 수없이 아빠에게만 잘 좀 챙겨서 신경써달란 말씀을 드리곤 그렇게 1-2년이 지났다. 알고 보니 그사이 엄만 교회에서도 당신이 수에 그리 밝아 늘 맡아 하시던 모임의 총무나 여러가지 봉

사 자리를 달라진 스스로의 모습에 자신감이 떨어져 활동을 거의 다 내려놓으셨다. 그러다 보니 점차 사람들과의 만남도 사라지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다였던 거다.

4살 더 많았던 아빠는 엄마와 달리 청년이란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약 한 알 드시는 거 없이 너무도 건강하셨는데 퇴직 후에도 워낙에 지역사회 활동이 많으셔서 늘 바쁘시고, 식사도 엄마 혼자 하셔야 하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나는 매번 전화로 아빠께 잔소리하기에만 바빴고.

나도 바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처음 걱정했던 마음처럼 엄마를 챙기는 게 쉽지 않았다. 어느 날엔가 집엘 내려갔는데, 엄마가 빨래를 하셨다며 세탁물들이 널려져 있는 빨래 건조대에 세탁물을 발견하곤 너무 놀랐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도 했거니와, 엉망진창으로 널려진 게 눈에 확 들어왔다. 그리곤 집안 곳곳을 살펴보니.. 설거지가 엉망으로 되어 그릇들이 지저분하고 정말 전과는 확연히 엄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뒤 서울로 와서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진료 받기를 권유하고 말로만 듣던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무거운 마음도 잠시 뒤늦게 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 알게 되어 아빠께 말씀드려, 등급심사를 받아보길 권유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5등급으로 시작이 되었다. 아마도 보기에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 걸로 답변을 하셨던 것 같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다.

등급이 나오곤 방문요양선생님들이 나와서 엄마와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한데, 역시나 엄마의 성격에 쉽게 받아 들이실리 없었다. 두어 명의 선생님이 바뀌었으나 꾸준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없었고, 어느덧 엄마와 아빤 그냥 포기한 채 생활하시고 지냈었다.

결혼에 대해 크게 생각이 없다가, 점점 더 안 좋아지시는 엄마를 보고 뒤늦게 효도하는 길이라 생각하곤 결혼을 늦은 나이에 하게 되었고,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하시는 부모님들 모습에 조금의 위안이 들었던 것 같다. 사위를 보시곤 좋아하시는 모습. 물론 엄마의 컨디션은 당연히 예전과 같진 않았지만 그래도 엉망이던 살림으로 우리가 내려가면 손수 식사를 준비해주시려 하고. 나는 그냥 나가서 맛있는 거 사먹자며 외식을 권유하기도 하기 일쑤였다.

2013년 겨울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두 분이 돌잔치 때도 올라오시고, 몇 달에 한 번씩 서울로 놀러 오셔서 하루 이틀 주무시고 가시고 그렇게 그냥 약을 드시며 크게 나아지는 거 없이 지내시다 2015년 5월 우리 둘째가 태어났다.

그때만 해도 메르스로 인해 아이를 보러 오시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백일 때나 되서 보러 오시라고 보러오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께 계속해서 뒤로 미루다가 결국 8월초에 아이를 보러 오시고 그러고 2주 뒤, 그날도 전화를 자주하시던 우리 아빠. 나에게 별일 없냐며 충주에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 구경 갔다가 전화했다 하셨다. 당연히 엄마와 같이 계신 줄 알고 물었으나, 내 잔소리 때문이었는지 이제 엄마 모시러 가서 저녁 먹고 또 구경 가려고 하셨던 우리 아빠. 집에 도착해 확인전화를 나에게도 한통 하셨었는데 그날 밤 11시, 엄마의 핸드폰으로 밤늦게 전화가 울려 받으니 받을때만 해도 엄마가 실수로 누르셨나, 그 밤에 전화

가 올리 만무한데.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고 '충주건대병원 응급실인데요.'

교통사고였다. 아버지는 의식 없이 병원으로 실려오셨다하고, 어머니는 외상이 있으신데 의식은 있으시다며 빨리 내려오셔야 할 것 같다는 전화한통을 받았다. 정말이지 tv드라마에서나 볼법한 상황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다. 눈물이 앞을 가리며 짐을 대략 챙겨 그때당시 백일도 안 된 둘째와 18개월인 아이를 챙겨 급히 시댁에 맡기고 내려갔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 엄마 먼저 만나보게 되었다. 외상에 너무 놀랐으나 그래도 정신이 있으셔서 너무 다행이었고 아빠는 영안실로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그렇다. 정말 꿈이라면 좋겠다란 생각만 가득했다. 그래도 아빠가 계시기에 엄마가 편찮으셔도, 한편으론 같이 계시니 다행이다 라며 지내왔는데, 생각치도 못한 아빠의 사고사. 엄마에겐 도저히 아빠의 상황을 전할 수 없었고, 사고로 한 달간 입원해 계시던 상황이라 엄만 아빠의 장례를 볼 수도 참여할 수도 없었다.

그 와중에 아빠를 찾으시던 엄마껜 아빠도 같이 사고가 나서 남자들 있는 병실에 계시고 있다..라고만 둘러대던 나와 동생은 상의 끝에 한 달이 지난 뒤에서야 아빠의 소식을 전했고 안타깝게도 엄만 사고로 머리 쪽에도 출혈이 조금 더 있으신 상태였는데 그로인함인지 아빠의 사고소식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았다. 그냥 다시 청년 때로 돌아가신 것 마냥 먼가 생각에 혼돈이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 그때당시 느껴졌다.

어느 땐 미혼인 엄마로, 어느 땐 결혼은 했는데 자녀가 없는 상태로, 어느 땐 또 정상인 것처럼. 장례 후 지방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 서울 세브란스로 전원처릴 하여 올라오게 되었고 엄마에게 더 이상의 처치는 필요하지 않다하여, 장기입원이 더 이상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주변에서 요양병원 같은 곳을 알아보라고 하여 동생과 나는 급히 병원주변에 있는 한곳을 방문해서 둘러보았으나 그때당시 64세였던 엄마를 모실 수는 도저히 없다란 판단에 우선 누나네 모시고 있어보며 좀 더 알아보자 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함께 지내고 있다.

엄마와 함께 생활하던 그때 아이들은 21개월 그리고 4개월. 두 아이의 육아로 매일이 힘든 가운데 엄마의 증세는 점점 더 좋아지지 않았고 매일 저녁 식사 후에 기억을 되돌리고파 엄마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게 나란 이야기들을 되풀이하며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면 왜그랬을까 싶은 말다툼하기 일쑤였던 것 같다. 물론 지금은 소통할 수 있는 대화자체가 불가하니 오히려 싸웠더라도 그때 그 시절이 그립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처음엔 2시간씩 재가 방문요양으로 1년간 인지프로그램을 진행하셨으나,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로 인해 매일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게 힘든 상황이 되었고, 선생님의 권유로 데이케어센터를 알게 되었다.

등급 심사 때마다 점점 엄마의 인지는 안 좋아지셔서, 급기야 작년부터는 2급까지 오시게 되었는데 사실상 데이케어센터는 몇 년째 다니고 계시지만, 계속 안 좋아지시다 보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많이 힘드실꺼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아직 69세이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기엔 참 마음이 쉽게 따라주질 않았다.

지금의 내 생활엔 아이들 등원보다 먼저 데이케어로 보내드리고 저녁 식사 후에 돌아올 수 있게 도움 받는 데이케어센터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아이들은 방학 때면 여행가잔 소리를 곧잘 하지만, 지금 내 현실에선 엄마모시고 어딘가 간다는 것이 엄두나지 않는 일이였고, 엄마를 맡기고 간다는 건 더더욱 쉽지 않아 기껏해야 당일치기 일정이 다였다.

작년 봄엔 돌봄가족 휴가제를 통해 강원도로 1박2일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도 하고, 맛난 것도 즐기고, 엄마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홀가분한 마음이 짧지만 그래도 힐링이 되었던 것 같다. 감사하게도 경비까지 함께 해주시니 그야말로 엄마를 통해 선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더욱 감사했다.

무엇보다 지금은 함께 지내며 가장 안타까운 게 엄마의 체중이 1년 반 전부터 서서히 20kg나 빠지시면서 무엇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고민과 혼란 속에서 지내던 중 우연히 돌봄지원센터의 문자에 작년 11월에 교육프로그램 안내를 받게 되었다.

현재까지 부축 받으며 보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지남력, 균형감등이 많이 없으시다보니 항상 엄마를 끌고 다니는 느낌으로 보행시 힘들고 또 이게 잘하는 걸까 고민 중에 센터를 통한 이동돕기 교육을 들으며 엄마 상태에서 적용할수 있는 부분들을 도움 받게 되었고, 노인성질환의 이해와 치매어르신과의 의사소통 등의 교육을 통해 엄마의 질병을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실사례들의 얘기를 들으며 위로도 받고, 강의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 질의응답해 주시는 부분들로 약 처방에 대한 부분등 궁금했던 부분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 교육진행자분의 권유로 개인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결혼생활 8년 중 6년을 엄마와 함께 지내며 남편과의 어려움들, 쌓인 스트레스로 인한 아이들 육아시 고충들, 또 무엇보다 나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

주변에서는 어린아이들 키우며, 엄마를 돌보는 상황을 보고 대단하다며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사실상 데이케어센터 같은 기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온전히 집에서만 모셨다면 장담 못할 거 같다.

사실 어제도 집근처 요양원 대기입소 한 곳에서 자리가 났다며 전화를 받았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3년 정도 전부터 엄마의 대소변이 힘들어졌을 때 하남에 있는 교회재단 요양원을 알아보고 O/T까지 받았던 상태였는데 막상 마지막 입소 5일을 남겨두고 취소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론 모시게 되더라도 집과 아주 가까운 곳으로 모시는 게 낫겠단 생각에 한곳만 대기를 걸어 두었고, 그곳에서도 벌써 4번째 전화였다 어제까지.

그러나 지금의 나의 마음은 그래도 거동은 하시니깐 지금 상태로만이라도 유지해주시면 그동안은 내가 모시고 있는 게 낫겠다란게 나의 마음이고.

언제고 오실 수 있겠지만, 거동이 어려워지시는 그때는 나보다 전문이신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나을꺼란 판단으로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 어떤 질병보다 슬프고 힘든 치매.. 당사자의 고통만큼이나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도 너무 큰…좋아지기 힘들다곤 하지만, 엄마를 지켜보다보니 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가 그래도 나은 때였구나, 란 생각을 자주하게 된다.

사실상 아이들은 자라지만 엄마는 점점 더 안 좋아지시니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곁에 계셔서 볼수 있단 게 언제곤 지금 때를 그리워할 수도 있을 거 같다.

때늦은 후회하지 않도록 힘들지만 오늘도 나는 힘을 내보련다! 그간 가족휴가제도와 교육, 상담 등 좋은 프로그램 마련해주신 돌봄가족 지원센터 여러분들과 매일 엄마를 케어해주시는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여러분께도 이글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우수상	우리 엄마는 올해 96세 치매 4등급 환자입니다.

8년 남편과 나는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같이 봉사를 하며 남은 시간을 보내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엄마의 치매는 남편과 나의 제2의 인생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몇 년 전 연세가 점점 드시니 걱정이 되어 미리 치매 검사를 받아보자고 설득하여 치매지원센터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연세에 비해 아직은 괜찮다고 하여 한 숨을 돌리게 되었다. 어느 날 같이 외출하고 오다가 엄마를 먼저 집으로 가시라고 보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마을버스를 타시면 될 것을 횡단보도를 건너서 반대방향으로 가셔서 당황하신 엄마의 전화를 받고 허둥지둥 달려가서 겨우 엄마를 찾을 수 있었다.

그 뒤로도 여러 번 이유 없이 고집을 피우고 공격적으로 화를 내는 일이 잦아져 지인의 소개로 신경과를 소개받아 진료를 받고 CT를 찍었는데 뇌 사진이 하얗게 나왔고 의사는 알츠하이머치매라고 진단을 내렸다. 아직 초기이니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이 느려서 그나마 다행이라 하셨다.

여태까지는 근처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며 보살펴드렸는데 이제는 혼자서 계시게 할 수가 없어 마침 아들 둘이 다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해서 방이 비어있던 터라 외풍이 없도록 창틀을 보완하고 욕실에도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엄마 짐을 다 정리한 후 우리 집에 모시게 되었다.

이사를 오는 날도 거실에 떨어진 나사못을 보시고는 문이 떨어진다고 빨리 나사를 조이라고 하시고 창문이 잠겨있는데도 열리지 않는다고 송곳으로 쑤시고 계시는 이상한 행동을 하셨다.

집에 모시고 보니 그간 왔다 갔다 하며 보살펴 드린다고 했지만 제대로 음식도 안 드시고 수척해진 모습에 안쓰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집이 안정이 된 후에 데이케어센터를 여기저기 알아보고 가시게 되었는데 다행히 적응을 잘 하고 계신다. 연세에 비해 치매 외에 다른 질병이 없이 건강하셔서 다행이다.

3년 전 크리스마스 즈음에 데이케어센터에서 크리스마스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주셨다. ‘수경아 나 밥해주느라 수고가 많다 고맙다’라고 적힌 카드를 보는데 그래도 막내딸이 고생하는 것은 아시는 것 같아 눈물이 났다.

8년간 치매를 앓으시며 올 해 들어 유난히 정신이 없으신 것 같다. 매일 조금씩 굽어지는 등을 보며 표정도 없고 눈에 초점도 없고 예전의 씩씩하고 강한 엄마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엄마가 이상한 행동을 하실 때마다 짜증을 낸다. 일찍부터 혼자 되셔서 홀로 두 딸을 키우시느라 강하고 엄격하게 우리를 키우셨는데 이제는 나를 알아보시기는 하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모든 것에 반응이 없고 무

표정하다.

반복되는 일상이 매일 하나씩 구멍이 생기며 이제는 어떤 옷을 입는지 무엇을 먹는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알 뿐 도무지 혼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없다. 그러다 데이케어센터에서 돌봄가족휴가에 대해 안내를 해 주어 단체 여행을 가게 되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 돌봄에 지쳐있는 사람들과의 3박4일은 많이 어색했고 이런 모임이 처음인 나는 그 상황이 많이 불편했지만 몇 번의 간담회를 통해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나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웠구나 생각은 들지만 여전히 나의 상황만 힘들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다.

돌봄가족들은 국가가 많은 것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며 우리도 세금을 내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늘 부족해서 더 많은 것을 해 주기를 바라며 불평을 하는 그들을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서울시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연락이 왔고 호기심에서 계속적으로 참석하며 다른 가족들과 만남을 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형편을 공유하며 내가 잘못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깨우치고 느끼며 배우는 중이다.

가장 큰 변화는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자격을 얻고 가족요양을 하게 된 것이다. 나의 인생에 들어와 내 삶을 방해한다고만 생각했는데 돌봄을 하면서 나에게 얻어지는 것들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남들이 보기에 치매 엄마를 모시고 있다며 수고했다 말해주고 잘 한다 칭찬해 주고 무엇이나 양보하고 챙겨주는 것들과 스스로 잘 견디고 있다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다.

돌봄센터에서 우연히 같은 동네에 있는 돌봄가족을 만나서 서로 얘기하며 같이 운동하고 위로하고 스트레스도 푸는 친한 친구도 생겼다.

돌봄가족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며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보며 내가 느끼며 체험하는 것들도 치매가 걸린 엄마를 돌보고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예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모실 때에도 나는 늘 어머니가 변하기를 바랐었다. 그러나 믿음생활을 통해 내가 변해야 가정의 평화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변해야 한다고 자기 최면을 걸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의 삶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찾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엄마는 변기에 손을 넣어 씻고 있는 이상한 행동을 하며 조금씩 인지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매일매일 다른 모습으로 나를 놀래키며 나의 인내심을 시험을 하고 계신다. 내가 어릴 때는 엄마의 속을 썩이며 애를 먹였으니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할 차례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

평소에 사우나를 좋아하셔서 일주일에 한번 씩 대중사우나에 모시고 가는데 지난 추석 무렵 평소대로 엄마를 먼저 씻기고 의자에 앉혀놓고 나는 때를 밀고 있는데 엄마가 일어나시면서 계속 변이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본인은 그 상항을 전혀 모른 채 무심한 얼굴이다 얼마나 창피한지 허겁지겁 수습하고 거기를 빠져 나왔다.

그 후로는 사우나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씻기면 온 몸을 나에게 맡긴 채 어린아이 같이 좋아하시며 힘이 없고 눈은 초점이 없는 얼굴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힘들고 짜증이 나지만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 속으로 많이 울기도 하지만 엄마는 좋기만 하신가보다.

지난 해 말에는 폐렴을 앓으신 후 식사를 전혀 못 하셔서 누워만 계실 때는 혼자서 돌보기가 너무 힘들고 음식을 삼키지를 못하실 때는 요양원에 보내야하나~ 하고 몇 군데를 알아보다 눈물을 펑펑 쏟으며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용납되지 않아 요양원에 보내기를 포기 했다.

다시 기운을 차리시고 나니 정신도 조금은 맑아지시고 나를 알아보시는데 나중에 후회할 일은 하지 말자 하지만 여전히 엄마에게 짜증을 내는 나를 보게 된다.

언제쯤 엄마의 질병을 완전히 이해하고 부드러운 딸이 될 수 있을지 돌봄가족 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열심히 참여하면서 마음을 다스려가야겠다.

그러나 엄마는 오늘 아침에도 또 하나씩 생각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변기에 손을 넣고 계시고 나를 당황 시키네요 목까지 차오르는 짜증을 꾹~~하고 삼킨다.

엄마를 오랫동안 돌보면서 서울시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의 팀장님과 선생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돌봄이 없었으면 더 힘들고 마음이 더 강박해져서 불편한 생활을 했을 것이다.

혼자서 모든걸 감당하려고만 했다면 지나온 8년과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돌봄의 시간들이 돌봄센터가 있기에 큰 힘이 된다. 느닷없는 코로나19로 모임의 시간이 많이 줄었지만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참여하며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열심히 할 생각이다.

치매를 좀 더 알고 치매 환자를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해주고 돌봄의 생활 중에서도 나를 찾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 서울시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 앞으로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쭉~ 가야할 돌봄 과정 속에서 계속 응원해 주시고 투정을 받아주는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 파이팅!!

우수상	울엄마는 해바라기 꽃

엄마! 어무이! 어머니! 나는 오늘도 조금은 익살스럽게 두 팔 벌려 어머니를 부르며 어머니의 흐뭇한 미소가 퍼질 때까지 아침 기상부터 이렇게 어머니와의 하루가 시작된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함께 사신지도 어언 3년이 다 되어 간다. 원래는 큰아들네와 사셨는데 갑자기 큰아들 쓰러지고 끝내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된 채 15년 째 병상에 지금도 누워 있다.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시대의 부모님이시지마는 딸이라고 경시하고 아들이라고 더 중시하지는 않으셨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아무리 아들, 딸 구별없이 키우셨다 하더라도 함께 생활해 온 장남이 어느 하루 새벽에 의사소통도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었으니 그 아픈 가슴 무엇에다 비할까.

그렇게 아들 아프고 며느리 분가시키고 몇 년 사시더니 두 분이 똑같이 생각지도 않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도저히 두 분만으로는 생활이 안 될 상황까지 왔다. 두 분이 엘리트라는 자부심도 가지시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사셨는데 스트레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상주하는 가정 도우미를 모실까도 했지만 아무도 집에 못 오시게 하고 여름에도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못 켜게 하셨다. 결국은 우리 아파트 옆 동으로 부모님을 모셔왔고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왔다 갔다 두 집 살림을 꾸려갔다. 당연히 맏딸인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 게 어머니, 아버지도 좋아하실꺼라는 생각과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을 돌봐 드릴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모셨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렇게 옆 동에 사신이 몇 년 지난 어느날 연세는 높으셨지만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3일 자리에 누우셨다가 갑자기 노환으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도 없이 아버지 가신 날부터 자연스럽게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시고 어머니와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어머니와 함께 한 그날부터 그야말로 나의 어머니 돌보기 작전(?)은 밤낮 구별 없이 하루에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머니와 부딪치며(엉뚱한 행동, 현실 생활에 대한 부적응, 합리적이지 못한 분노감 등)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나만의 방식대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모른 채 정말 힘든 시간들이 흘러갔다.

어머니는 치매 4급이시다. 내 생각으로는 모셔 온 그날부터 아예 '잘 됐다! 한 집에서 가까이 모시면 더 잘 보살펴 드릴 수 있겠다'는 그야말로 의욕만 앞섰지, 잘 보살펴 드리려 시도한 나의 방법은 이론과 실제가 너무 안 맞았다. 당신이 낳고 키우셨던 딸하고 사는데 왜 저리 생강짜를 부리실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다. 밤에는 잠도 안 주무시고 이리저리 배회하시다가 식사 안 해서 배고프다고 성질을 내시기도 하고 이것저것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계속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나였다. 그렇게 어머니가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

을 하실 때 어머니는 그냥 정상적인 노인이 아니라 서너살 정도의 사고와 인지능력밖에 안 되는, 더욱이 치매 환자라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렇게 엉뚱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환자라는 생각은 못 하고, 예를 들어 밤 두세 시에 밥 먹어야 한다고 우기면 “엄마, 지금 몇 신지 보세요! 지금은 한밤중이잖아요!” 아이들 가르키듯이 조근조근 설명하고 상황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 상책인 줄로 생각했다. 하다못해 어머니와 동요를 함께 부르다가도 어머니가 한 구절 틀리시면 계속 지적해서 제대로 따라 하시도록 강요했다. 사고, 인지력, 감정조절력 그 어느 하나 어머니의 실체를 파악도 못하고 그저 정성들여 몇 번이고 반복학습 하다 보면 어머니가 훨씬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꺼라 믿었다. 그런데 친절한 설명 위주의 돌봄 방법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어머니만 더 피곤하게 했고 지적 받고 간섭 받는다는 생각이신지 반항도 커지고 불안하신 마음에 엉뚱한 짓도 더 많이 하셨다.

그러던 어느날 “치매가 뭐지? 그래, 치매가 바로 그런거야, 바로 그거다!” 그날부터 어머니를 어떤 분간도 잘 안 되는 치매환자로 직시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틈만 나면, 온 몸으로 따뜻하게 수도 없이 안아드렸다. 어머님의 심리적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아무튼 하루 종일 어머니가 기분 좋게 지내시도록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어머니께 다가갔다. 한 손으로 밥숟가락 떠 드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어머니 한 손 잡고 어머니 눈 맞추며 밥 한 그릇 비웠다.

돌봄의 당사자 즉, 내가 수용의 자세로, 포용의 자세로 변해야 되는 것이었다. 지금은 어머니 앞에서 몸개그도 한다. 깔깔대고 웃으시면서 너무도 재미있어 하신다. 웃음은 거짓이라도 자꾸 웃으면 그 웃음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듯이 이제는 어머니를 웃게 하는 레퍼토리도 많아졌고, 나의 생각의 전환과 행동으로 나 또한 행복하다는 생각도 든다.

어느 날 남편이 나에게 “당신 요즈음 굉장히 명랑해졌어!” 라고 했다. 내가 바뀌긴 확실히 바뀐 건가보다. 요즈음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머니랑 하루 종일 함께 보낸다. 어머니는 눈을 떠도 내가 있고 눈을 감아도 내가 있으니 더더욱 좋으신가보다. 내 이야기도 잘 따르시고 매사에 협조적이시다. 하루 종일 어머니 시중들다 보면 힘들 때도 많다. 그렇게 나의 몸은 지쳐 가지만 어린애처럼 나만 옆에 있으면 마냥 좋아하시는 어머니의 표정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하다못해 누워 계실 때도 나를 쳐다보면 안심이 되시는지 고개를 내가 있는 쪽으로 돌리고 누워 계신다. 아예 내가 부엌일 할 때는 내 뒷모습이라도 보시라고 식탁 의자를 내 뒤쪽으로 돌려놓고 어머니를 앉혀 드린다. 오직 나에게 눈길 보내는 것에 열중하시는 어머니가 문득 해바라기 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나를 햇님으로 생각하시나?

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우리 어머니와 영원히 이별하는 날 나를 기억 못해도 좋다. 단지 천상병 시인의 「귀천」의 시귀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하는 느낌으로 행복 가득 머금고 가셨으면 좋겠다. 아마 지금도 우리 자매들은 근엄한(?) 우리 큰 언니가 몸개그까지 하며 어머니하고 유아틱하게 살아가는 거 상상도 못 할 꺼다. 어머니는 내가 더 유아틱하면 할수록 더 재미있어 하신다.

나는 오늘도 우리 어머니의 행복한 미소를 위해서 더 많이 바쁘게 온 몸으로 웃기고 사랑

보낼 꺼다. 더 많이 푼수짓도 하며 재미있게 해드릴 꺼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어머니 가시게 할 것이다. 저 하늘나라로.

그런데 그놈의 이별이란 단어는 생각만 해도 왜 이리 눈물이 나지!

우수상	웃음천사 요양보호사와 짧지만 행복한 충전, 돌봄휴가제

어머님께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신 지도 이제 1년이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체장애 1급인 아들인 저와 올해 만 여든이신 어머님 이렇게 두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아들로 둔 어머님은 하루도 걱정 없이 사신 날이 없었습니다. 장애인인 저도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걱정만 끼쳐 드려 항상 마음 한구석이 아팠었습니다. 어머님 나이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몸 여기저기가 아프시기 시작하더군요. 무릎이 안 좋아 오래 걷지도 못하셨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걸으시다 넘어지시면서 땅바닥을 조금 세게 짚으셨던 거 같습니다. 며칠 어깨가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을 가보니 쇄골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료 받은 다음 날 수술을 받고 한동안 한쪽 팔을 못 쓰시는 상태로 생활을 하셔야 했죠.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도 못난 아들 밥 거르지 않게 하기 위해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주시는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8년에는 형님께서 목 디스크와 발목관절염으로 수술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잇달아 일어나니 집안 분위기도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우울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작년 초에는 몸에 힘이 없으신 어머님께서 엉덩방아를 찧으시고 못 일어나시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가 있는 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잘 알고 지내던 동네 아는 형님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날이 또 일요일 야간이라 그 형님의 도움으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이것저것 검사 후 척추에 미세한 골절이 생겼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 해주시더군요. 수술여부는 다음 날 MRI 검사를 실시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하시며 입원수속을 밟으라 하셨습니다.

새벽까지 검사받는 어머님을 지켜보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하다 보니 제 몸도 녹초가 되었습니다. 전 몸이 불편해서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자지 못하는데 그날은 정말 많이 지친 거 같습니다. 병원 간이 침대에 드러눕자 마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MRI 검사 후 수술은 당장 하지 안해도 되고 보조기 몇달 착용하면서 지내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약물치료, 보조기 착용하면서 1주일간 병원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저에게 많은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이 상태로 어머님이 퇴원을 하시면 제가 옆에서 보살펴 드려야 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정신건강토털케어서비스를 받으며 알게 된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바로 병원에 들러 주시고 어머님 상태를 보시며 퇴원 후 함께 방법을 알아보자고 하시더군요.

퇴원 후 사회복지사님께서는 노인장기요양신청을 해보자고 하셨고 신청을 해서 장기요양 4등급 인정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는 집에 낯

선 사람이 오는데 대해 많은 거부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 본인부담금 15%를 납부하고 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다행히 본인부담금 감경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이나 지역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보험료가 일정금액 이하이면 본인부담금의 40%, 60% 까지 감경시켜주는 제도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저희 가족은 60% 감경 대상이 되더군요. 요양서비스를 받아도 사용금액의 6%만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에는 매달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가 함께 고지되어 나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몇 푼 안 되는 이 돈이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를 우리 가족이 사용하게 될 줄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국민들이 조금씩 부담한 장기요양보험료가 한 가정의 큰 짐을 덜어주니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설연휴가 지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서비스제공기관의 대표님과 여성분인 요양보호사님이 함께 저희 집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침대에 누워계신 상태로 정신이 없으셨던지 누가 오신지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런저런 상담을 한 후 다음 주부터 바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님이 오신 첫날, 요양보호사님은 한동안 청소를 하지 못해 수북이 쌓인 쓰레기들을 청소해 주셨습니다. 빨랫감들은 정리해 따로 놓아두시고 어머님 드실 국과 밑반찬을 해놓고 내일 또 오신다며 어머님을 한 번 안아주시고 가시더군요. 한 사나흘 지나 집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어머님과 대화를 통해 친해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드나드는 게 어색해 하셨던 어머님도 요양보호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매일오시며 딸같이 어머님을 돌보아 주시니 저도 차츰 마음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어머님은 20일에 한 번씩 우울증 약 처방을 받으셔야 하는데 병원도 요양보호사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여 요양보호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어느덧 저희 가정은 점점 예전의 모습을 많이 찾았습니다.

전 한동안 잠시 미루어놓았던 사회복지사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와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여러 가지 집안사정상 학업에서 잠시 손을 놓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님 덕분에 작년에 가정이 점점 안정되어 가면서 학사학위공부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학위취득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도 응시하여 합격의 기쁨을 안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저희 어머님도 돌보아 드리고 제게도 잠시 잃었던 꿈을 되찾게 해주신 거 같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오시고 난 후 어머님은 웃음을 많이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엄마와 딸 같이 손잡고 잠깐 밖에 나가 산책도 하십니다. 이제는 하루 중 요양보호사님이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재미에 사시는 거 같습니다. 한 사람으로 일어난 저희 집안의 작은 변화들, 계속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 같은 상황에서 지금 저희 집을 방문해 주시는 요양보호

사님은 가족만큼 소중한 분이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해 주시는 일들 중 가장 좋은 건 어머님께 좋은 말벗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들인 저는 말도 별로 없고 밥도 어머님은 바닥에 앉지를 못하셔서 침대에서 드시고 전 바닥에 앉아 먹으니 예전에 한 밥상에서 밥을 먹던 때와는 다르더군요. 요양보호사님이 어머님께 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머님께는 드시는 약만큼이나 치유가 되고 힘이 되는 걸 봅니다. 전 요즘 주변 친구들에게 나중에 부모님이 몸이 많이 편찮아 지시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저의 상황을 본 함께 공부하던 친구가 부모님 모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되어서 고맙다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어느덧 전 장기요양서비스 예찬론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님께는 저렴한 값에 성인용 보행기도 구입해서 외출 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작년말에 갱신신청도 승인이 나서 앞으로 3년간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효나눔을 실천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임금을 받고 일하시고 있는 것이지만 그 분들이 있어 우리 가족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이 깃드는 거 같습니다 우리 모자가 안정을 찾아가는 즈음, 작년 어느 날 우연히 서울시 어르신 돌봄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가족 돌봄휴가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어르신들의 가족에게 잠깐의 쉼과 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몰라 망설이다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선정자로 통보가 와서 참 기뻤습니다. 우연찮게도 제 친구도 돌봄휴가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계획을 세우고 7월에 월미도로 하루 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1인당 15만원씩 지원을 받아 30만원으로 주유비, 점심, 저녁 식사를 하니 얼추 지원비용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모처럼만의 휴식, 그리고 잠시 집을 떠나 맞은 재충전의 기회, 친구와 나는 이런 다양한 제도로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신청을 하였는데 선정이 되어 15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와 폭우로 인해 멀리는 못가고 가까운 곳에서 하루 정도 바람쐬고 아는 후배와 식사나 할까 생각중입니다. 돌봄 휴가제 덕분에 짧은 시간이지만 내 몸을 재충전하며 어머님을 더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새기게 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는 요양보호사님께도 항상 고마운 마음이구요. 요양보호사님이 저희 집으로 방문요양을 오신 지 이제 1년 6개월여~~~ 언제까지 지금 오시는 요양보호사님과 함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어머님이 웃을 수 있고 저도 힘을 많이 덜어 행복합니다.

오늘도 저희 웃음천사 요양보호사님은 행복과 웃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행복은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만들어 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돌봄 휴가제를 운영하시는 서울시 어르신돌봄가족 지원센터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수상	마음이 지워지는 병과 친구 되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하나의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 그렇다. 우리 집 역시 외할머니가 위암으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고, 이모 역시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본인이나 나도 사실 암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고,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하면 혹시나 암일까하여 덜컥 마음을 졸이곤 했다.

그런데 만사는 항상 예기치 못한데서 터지는가 보다. 3년 전 오랫동안 살던 동네를 떠나 새로 상암동에서 터를 잡게 되었다. 엄마는 전에 살던 곳을 매우 그리워하고 거기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 때부터 좀 횡설수설하시고, 전에 했던 말을 하시고 또 하시곤 하는거다. 환경이 달라져서 그렇겠거니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엄마의 건망증은 심해졌다. 그리고 가족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본인이 생각하시는 어떤 일은 반복해서 하시곤 했다. 강박증이라고 할 수 있었다.

처음에 “네. 맞아요.”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 하셨을 때 나는 약간 얼떨떨했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맞다. 사회생활도 오랫동안 하셨고, 성격도 매우 활달한 편인지라 엄마가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치매였던 친구 시아버지가 종국에는 자기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고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충격적 이야기 때문이었을까? ‘아!’하는 짧은 탄식만 나왔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차분하게 생각해 보자고 나를 타이르면서 병원을 나섰다.

우선 주변 지인들에게 우리 엄마가 치매라는 사실을 알리고 치매이신 분들을 경험했던 이들에게 많은 정보를 구하고 치매에 관한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기 시작했다. 책과 정보는 치매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몇 가지 정보와 책 내용을 바탕으로 나는 엄마의 치매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리고 엄마에게는 엄마가 치매라고 알려 주었다. 당연히 엄마는 그 말을 또 잊어버리고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모르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엄마에게 계속해서 그 말을 해주면서 치매가 병이 아니라 노화의 과정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싶었다. 그래서 기억력의 퇴행은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고, 만약 엄마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파출소로 가시라고 누누히 말씀 드렸다. 그럼으로써 나는 치매는 티브이 광고에 나오는 효녀효자인 자식들의 등짝을 치는 끔찍스런 병이 아니라 우리 엄마를 다른 노인분들보다 좀 더 기억력이 더 나쁘고, 변덕이 심해 손길이 좀 더 가는 그런 할머니로 만드는 노화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자 했다.

이런 긍정적 태도와 달리 현실에서 엄마와 나는 조금씩 부딪치고 싸우기 시작했다. 엄마는 근처 사우나에 매일 가셔서 그 곳 분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거기서 수건을 하나나 두세 개씩 가져 오셨다.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로 하고, 급기야는

화도 내고 엄마랑 싸우기도 몇 차례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내 말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원칙주의자여서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소위 도둑질(?)을 하는 엄마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치매는 큰 것이 아닌 사소한 일상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쓰레기 역시 재활용과 일반으로 나눠서 정해진 요일에 버려야 하는데 엄마는 그 둘을 뒤섞고, 아무 때나 갖다 버리고는 나에게 집안 청소를 다 했다고 자랑(?)하시는 거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강박이었다. 최근 일부터 급격히 망각되는 것이 치매의 특성인지라 엄마는 점점 과거로 돌아가 그 옛날 어느 시절에 머물곤 했다. 우리 집은 아파트 5층이라 도둑이 들 염려도 없지만 엄마는 아주 어릴 적 일반 주택에 살던 그 때를 생각하곤 한여름에 베란다 창문을 모두 닫아버려서 여름에 우리 집은 엄마와 창문 여닫기 놀이를 해야만 했다. 엄마가 닫고 방에 들어가시면 바로 내가 열고, 조금 있다 엄마는 또 나와서 문을 닫고, 그러면 내가 또 열고, 엄마한테 하지 말라고 하다가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되었다.

이보다 내가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과 억지, 시비걸기'였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을 못하는 엄마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시계와 반지, 그리고 지갑 등을 주무시기전에 방안 어딘가에 숨겨 두었는데, 아마도 본인이 도둑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기는 장소였으리라. 그런데 그 곳이 어딘지 당연히 다음날에 알지 못했고, 엄마에게 그 상황은 매우 당황스럽고 짜증나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불러 자기 시계와 지갑을 분명히 베개 밑에 넣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 없어졌다, 누가 내방에 들어와 감쪽같이 가져갔다는 등의 신경질을 부렸는데, 그것은 대개 다른 가족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섞인 아주 표독스런 것이었다.

또한 사우나에 가셔서도 그 곳에 계신 분들과 자주 싸우셔서 한번은 다시는 엄마가 그러지 못하게 하겠노라고 약조를 하고 다닐 수 있으셨는데, 어느 날 사우나가 공사 중이라 쉬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그걸 잊어버린 엄마는 사우나에 가셨다. 그리고는 내가 이미 돈을 냈는데- 6개월 이용권을 끊어드렸었다.- 왜 못 들어가게 하냐면서 안내 데스크에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소동을 부려 그 곳에 다신 오지 마십사하는 입장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동안 나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는 내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인간이었나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엄마를 한 인간으로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엄마와 나는 성격, 사고방식, 삶에 대한 가치관 등등에서 너무도 판이하게 다르다. 그래서 나에게 엄마는 사전적 엄마로서의 의미가 컸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줬으니 당연히 나도 그만큼 돌려줘야 하고, 그 것은 엄마에 대한 사랑이라기 보다 주고 받는 것이 정확해야 하는 나의 결벽에 가까운 성향때문이었다.

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 엄마는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약자에 강한 엄마를 나는 굉장히 비난하고 싫어했다. 자식이든 누구든 남의 말은 절대로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한마디로 엄마는 내게 너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였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약자에게 관대하고 어떤 하나를 고집하기보다 상황에 맞게 잘 사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적어도 엄마보다는 내가 더 그런 면에서 낫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졸하고 속 좁았다. 엄마가 일반 쓰레기봉투에 재활용을 버리는 것을 볼 때마다 왜 재활용을 거기에 버리냐고 화를 냈고, 세탁기를 빨래 몇 가지만 넣고 돌릴 때도 화를 냈다. 왜 세탁기 망가지게 그렇게 자주 빨래를 돌리냐고. 창문을 닫고, 집안 청소를 할 때에도, 가스렌지대를 덜그럭 거리면서 매일 닦을 때 엄마는 왜 그렇게 가만있질 못하냐며 화를 냈다. 내가 보기에 엄마가 그냥 있는 게 집과 가족을 위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엄마는 계속 쉼 없이 집안 청소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창문을 닫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나는 매일 매일 화를 내고 있었다.

하루에 몇 번씩. 나는 그러지 말자고 다짐했다. 일반 쓰레기에 재활용이 들어가면 좀 어떠냐, 문 닫으면 또 열면 되지, 세탁기 망가지면 수리하면 되지, 청소해서 집안이 깨끗하면 좋지 등등. 생각해 보면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그게 내 성격에 거슬려서 그런 것이었다. 그것이 진리이거나 절대불변의 원칙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사태가 흘러가지 않아서였던 것이다.

아뿔싸!!! 이런 사소한 것조차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야 마는 나의 이 용렬함과 미성숙에 정말 아찔했다. 그동안 내가 성인이라도 된 듯 생각했던 나의 오만함과 당당함은 정말 착각이었던 것이다. 나는 더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 나를 반성하고 단련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것은 한 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냐. 이제라도 깨달은 것이. 그리고 엄마의 치매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내가 옳다는 자만에 빠져서 다른 것은 전혀 돌아볼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니, 어쨌든 나는 엄마의 치매와 이렇게 해서 친구가 되어간다.

엄마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애를 낳아 보지도 않아서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른다. 단지 내가 원하는 엄마의 존재만 있을 뿐. 엄마는 어릴 적부터 매우 엄하고 강해서 나는 엄마와 충돌이 많았고, 따라서 내게 엄마는 이상적인 어머니의 상과 거리가 먼 존재였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내게 강요하거나 주입하려고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보니 엄마가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은 거의 나에게는 스트레스였다. 하지만 치매로 인해 엄마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엄마의 기억력 향상을 위해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엄마의 어린 시절과 나의 어린 시절 등등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생각해 보면 엄마는 해방이전에 태어나 6.25로 부모님과 떨어져 피난지에서 혼자 구걸해서 먹고 살기도 했고, 결혼해서는 여성으로, 어머니로 억척스럽게 살면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 하셨던거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속물 같고, 너무 이기적이고, 자식한테 넘 간섭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엄마에게는 생존이고 자식사랑이고 그랬으리라. 우리는 60년대 세대로 비합리적 권위와 반합법적 권력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와 자유에 익숙하기 때문에 엄마의 그러한 생활 방식이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제 엄마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니 훨씬 더 엄마에게 연민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여행을 워낙 싫어한다. 집에 있는 게 나의 가장 큰 평화이자 위안이다. 하지만 엄마가 여행을 좋아하셔서 이제는 엄마와 함께 여행을 다닌다. 가서도 여전히 나는 투덜거리고 화를 낸다. 이번 여름에는 장마가 가장 심할 때 구례에 가서는 비 오는 것만 구경하고 돌아왔다. 기차가 끊겨서 중간에 내려 고속버스로 갈아타고 간신히 서울에 도착했다. 별거 없는 여행이었는데도 엄마는 거기에 갔던 것이 무척 좋았다고 말씀하신다. 난 여행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가 좋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여행 다니는게 편해졌다.

최근에 병원에서 인지검사를 했는데, 작년보다 점수가 1점 높아졌다고 의사선생님이 엄마에게 엄지 척을 해주셨다. 정말 나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다. 사실 올해가 몇 년도인지 몇 월인지 엄마는 모른다. 그런데도 인지 검사할 때 년도도 맞추고 그러셔서 속으로 꽤 놀랐다. 어떻게 맞췄을까? 우연일거라고 생각해 본다. 주변에서 엄마의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말들도 하고, 상황이 그리 우울하지만은 않다. 물론 엄마의 기억력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며칠 전에는 버스를 잘못 타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택시를 타고 가서 모셔왔다. 그리고 내 방 티브이를 보시고는 전에 산 금성 티브이가 아직도 잘 나온다고 좋아하신다. 언제 적 금성인가?

방금 했던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말도 수십 번씩 대답해줘야 하고, 조만간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들도 거의 없겠지만 대부분의 힘듦은 나의 긍정적 태도와 사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몸이 편찮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말 아프지 않으신게 얼마나 다행이냐. 차라리 치매가 낫다고. 아프시지만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와서 자식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엄마 본인 생각에 행복하고 즐거우면 괜찮지 아니하냐고.

마지막으로 나는 치매라는 병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터무니없이 엄마를 바보로 만들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주변인들에게 색안경을 씌운다. 인지저하증이나 기억력 감퇴증 등등 뭐라고 해도 좋지만 치매는 아니다. 라틴어로 치매 dementia는 마음이 지워지는 병이라고 한다. 마음이나 정신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는 mentia(정신)를 de(잃은) dementian들이다. 어리석을 치에 어리석을 매인 치매는 치열하게 삶을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명칭이다. 제대로 된 아름다운 이름을 기대해 본다.